

소련海軍 發展史

편 집 실 抄譯

1. 머리말

最近에 있어 소련海軍力の 발전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미 그 保有한 艦艇의 隻數와 排水量은 미국을 능가하고, 또 세계각지에 基地를 획득하고 7개洋 전역에 그 存在를 과시하게 되었다.

원래 러시아는 大陸國이며 따라서 大陸軍國이란 인상을 받고있으며, 또한 Slav民族은 본능적으로 열지않는 바다의 出口를 구하는 것이 소망이며 그것을 國家팽창의 에너지根源으로서 오늘까지 帝國主義的 영토확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歷史를 도리켜 보면, 1904~1905年 露·日戰에 있어 우리를 先祖는 帝政소련의 艦隊와 민족의 死活을 걸고 海戰을 했다. 그당시 러시아艦隊는 세계적으로 有數의 大勢力을 갖고 日本의 海軍力을 上廻하는 힘을 가졌다.

즉, 러시아 全艦隊가 保有하는 裝甲主力艦은 15척, 日本艦隊는 6척(三笠등), 日本側의 裝甲巡洋艦은 우세하다고 생각해도 全裝甲艦艇의 수는 러시아 23척, 日本 16척으로는 러시아側의 우위는 日本海軍으로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全軍力을 동원하여 日本艦隊를 상대하는 전쟁의 原則은 채택하지 않고, 우선 太平洋艦隊만을 갖고 日本艦隊와 교전하여 패하고, 다음에 遠路를 回航하여 온 발틱艦隊가 東海海戰에 있어 東郷提督이 지휘하는 聯合艦隊의 집중砲火로 격멸되고 소련海軍은 “兵力의 順次使用”에 떠러지고 日本海軍은 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상에서의 사실은 러시아가 海上權力

확보의 무관심이 아니고 강력한 海軍力을 保持하는데 있어 의욕을 갖었다는 증거가 된다. 러시아 大海軍建設의 꿈은 東海海戰에 참패로 인하여 좌절하였다고 본다.

Tsar政府의 패전을 보고 革命에 좋은 前進으로 본 레닌은 「러시아海軍은 決定的으로 섬멸되고 전쟁은 再起不能까지의 敗戰이다……. 우리들이 보고있는 것은 단순한 軍事的 패배가 아니고 專政의 완전한 軍事的 붕괴이다」라고 著書하고 있지만 그와함께 레닌의 革命黨員들은 大海軍 없이는 조국의 防衛는 할수 없고, 또 野望의 世界赤化政策에도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歷史의 교훈으로서 배웠음이 틀림없다.

오늘날 大소련海軍建設의 새로운 계획이 레닌의 후계자들에게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2. 赤色海軍의 탄생

露·日戰의 패전후 Tsar政府는 海軍의 재건에 힘을 기우렸으나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이에 第1次 세계대전에 휘말리고 Tsar政府의 전복과 社會主義體制 수립을 목표로하는 革命이 시작되었다.

온건파의 겔렌스키內閣을 타도하고 소련共產黨을 권력의 자리로한 1917年 10月, 즉 「十月革命」에 있어 소련海軍 兵士들은 勞動者階級 투쟁의 유력한 구성부분이었다.

11月 7日 그레프린 습격에 의하여 레닌등이 권력을 쟁취하는데 성공했으며 겔렌스키는 海外로 亡命하고 다른 閣僚들은 그른슈타드軍港의 兵士

들에 경호하에 베트로바프로스크要塞로 호송되어 갔다.

또한 레닌은 海兵들에 部隊를 反革命粉碎의 중요한 장소로 사용하고 그들에게 깊은 信賴의 情을 표시하고 또 성과를 올렸다.

레닌은 國防省 내에 “海軍人民委員部”를 설립하고, 1918年 2月 12日에 帝政러시아海軍을 해산하고 「社會主義勞農赤色艦隊」를 창설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赤色艦隊는 발족하였지만 너무나도 尖銳한 思想때문에 레닌 등의 一黨支配에 반대하고 그른슈다트軍港에서 勞動者와 합세하여 反亂을 일으킨 海兵들의 폭도로 인하여 革命政府의 信賴感을 일코 Image Down을 초래하여 건설의 Tempo가 늦어졌다.

그렇지만 帝政러시아艦隊 붕괴후의 弱體化한 혁명정부의 艦隊는 반혁명의 白衛軍과 이것을 지원하는 외국간접軍에 대하여 赤色陸軍과 협동하여 용감하게 싸웠다는 것은 認定해 출만한 일이다.

國內戰爭에 있어서도 赤色海軍은 시베리아에서 공격해 오는 골작크軍에 대하여 우루가河 艦隊에 의한 방해가 성공하여 白衛軍에 의한 베드로그라드 奪還을 지원하기 위해 英國은 핀란드灣에 100척에 艦艇을 집결하였을때 발틱艦隊에 의하여 그 기도는 무너지고 黑海沿岸에서도 데니킨의 白衛軍에 대하여 赤軍의 공격작전에 협력하여 싸우는 등 各戰線에서 勇戰하였다.

그러나 그 전투범위는 河川, 湖水, 늪等 內陸水域과 沿岸地帶로 한정된 小海軍의 용법에 불과하고 이 정도의 海軍力으로는 외국에서 본격적 渡洋侵攻이 행해지면 이것을 방어하는 術策이 없는 것을 沿海洲와 사하린에 대하여 日本海軍으로 호위된 聯合軍의 上陸이 행해질때, 이것을 無抵抗으로 보고만 있었던 고통스립던 體驗을 통하여 革命政府는 심각한 教訓으로 받아들이고 海軍建設計劃을 추진하려는 것도 당연하다.

3. 赤色海軍의 成長

골슈고후(現소聯海軍總司令官)에 의하면 1921 《國防과 技術 1982.5》

~1928年 당시는 소聯의 艦隊復興時代이고 1929~1941年을 艦隊建設時代라고 칭하고 있다.

소聯政府는 國家建設의 中樞가 되는 重要國策의 하나로서 軍備增強을 계획추진한 것이지만 그 중요도는 스스로 陸軍 다음에 空軍充實로서 資金은 들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要員을 확보하는데 곤란한 海軍建設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1921年에 大戰과 革命으로 인해 파괴된 港灣과 造船工業의 복구가 시작되어 1924년에는 발틱艦隊에 主力艦 1, 巡洋艦 1, 驅逐艦 8, 潛水艦 9척이 배치되었으며, 또 이 시기에 黑海艦隊, 가스비海와 아물河(黑龍江)戰隊등이 부활되었다.

당시에 있어 소聯海軍復興의 Tempo로 保有艦艇의 총 噸數 증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23年(8만 2,000톤), 1924年(9만톤), 1925年(11만 6,000톤), 1926年(13만 9,000톤).

이리하여 소聯海軍의 부흥은 새로운 教育을 받은 要員의 增속이 계속되어 艦隊建設로 이행하고 있으나 어떠한 型의 海軍을 建設할 것인가 建軍의 教義(Doctrine)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노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최후에 스탈린의 의하여 決定된 계획은 결국 상식적인 모든 종류의 艦隊를 포함한 균형이 잡힌 海軍力建設이라고 하겠다.

1939年 3月 제18회 黨大會에서 海軍要員의 구스넛프는 「近代海軍은 여러型의 艦艇(잠수함, 구축함, 기타 輕快艦艇과 같은 戰艦, 重巡洋艦, 航母等)을 갖는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는 스탈린·독트린의 決定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유력한 要因은 獨·日양국의 海軍力 확장정책이었다고 지적하는 論者도 있다.

즉, 발틱海에서 소聯의 對抗馬, 독일이 베르사이유條約의 兵力條項을 파기하고 海軍建設에 전력을 기울이는데 자극되고, 또 東洋의 海에서 日本이 세계 大海軍國으로서 위용을 과시하고, 極東소領에 위협을 주는데 대한 초조감이 스탈린을 몰아내고 大海軍建設을 기도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有力한 하나의 원인이지만 그 이상에 世界赤化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는 스탈린에 의해 大海軍의 보유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또 그

형태로서 美·英·日 등 先進海軍諸國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일 것이다.

다만 스탈린은 自國의 造船能力에 대하여 잘못된 報告를 듣고 과대하게 편가한 것을 싫어하고 따라서 그 계획의 달성은 곤란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獨·소戰의 발발이란 不測의 사태에 相遇하여 소聯은 海上세력의 정비불충분 그대로 「大祖國戰爭」으로 돌입하였다.

4. 第2次大戦에서의 소聯海軍

第2次 世界大戦(소聯에서는 大祖國戰爭이라 呼稱)에 있어 소聯海軍은 어떻게 戰爭을 했었는가를 알아 보겠다.

발틱海域에서는 新式 巡洋艦 2척과 驅逐艦 기타 小艦艇으로 沿발트 3國港灣을 海上에서 防衛한 독일軍 진격을 지연시킨후, 戰艦 2척과 기타와 合流하여 레닌그라드防衛戰에 참가하고 독일空軍의 폭격에 의해 파괴된 艦을 포함한 全艦을 防砲臺로 하여 독일海軍과 싸우고 또 艦砲로서 독일包圍軍을 포격하여 防衛軍의 지원임무를 하였다.

그리고 海域에서는 소聯 潛水艦은 독일海軍이 부설한 機雷原을 돌파하고 출격하여 독일海軍이 발트海에서 인시적 방호태세를 재정비하는 여유를 주지 않았지만 소聯측 손해도 컸고 潛水艦 10척중에 7척을 잃었다.

그리하여 獨·소戰은 후반으로 접어들어 소聯軍의 반격이 시작되어 독일領 東부로이센이 소聯軍에게 점령당하게 되어 독일軍은 兵士와 住民들을 海路로 철퇴시키려고 巡洋艦 프린스·오이겐等 殘存 艦隊의 主力을 투입했지만 소聯도 航空과 海上세력으로 방해하고 大戦의 최후를 장식하는 死鬪가 발틱海 沿岸에서 전개되었다.

黑海海域에서는 독일은 海軍力을 사용하지 못하고 약간의 樞軸同盟軍인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小規模 海軍이 存在하였을 따름이다.

이에 대하여 소聯海軍의 黑海艦隊는 新式戰艦 1척, 巡洋艦 6척, 驅逐艦級 艦艇 27척과 潛水艦 50척 등을 보유한 유력한 艦隊였다.

그러나 독일軍은 우그라이나와 그리미야半島

를 석권한 결과로 黑海艦隊의 기지는 독일軍 地上砲火와 空軍機의 맹렬한 공격으로 艦隊는 黑海東端의 노보로시크로 후퇴하였고 1942年 가을에 그 노보로시크도 독일軍에게 점령당하므로 艦隊는 東南端에 있는 스후미등 2~3個 小港에 퇴각하였다.

만약에 독일空軍의 戰力이 더욱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黑海艦隊는 航空機의 공격으로서 전멸되었을지 모르지만 추적의 힘이 부족하였고 소聯空軍의 지원으로 艦隊는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리하여 스탈린그라드의 반격을 계기로 形勢는 역전하고 赤軍이 공세하므로 黑海艦隊는 이 공격을 지원하고 노보로시크, 게르지等 수개소의 上陸作戰을 성공시켰다. 이 作戰에는 海軍歩兵도 참가하였다.

北海海域에서 소聯海軍은 驅逐艦級 艦艇 11척, 潛水艦 27척과 다수의 魚雷艇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方面에 良港 블만스크를 공략하려던 독일軍에 대해 소聯艦隊는 陸軍·空軍과 협동하여 기도를 좌절시켰다.

또 潛水艦은 北部 노르웨이地區에 있는 독일軍에게 보급을 하고있는 독일船舶에 대하여 습격을 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소聯의 太平洋艦隊는 新型巡洋艦 2척, 驅逐艦級 艦艇 24척, 潛水艦 60척 이상으로된 戰力이 었지만 1945年 8월까지 美海·空軍에게 호응하는 하등에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소聯이 對日宣戰布告를 한 8月 10日 이후 약 2~3週間に 南部사하린(2개소), 北韓(4개소), 占守島(千島)등에 대한 上陸作戰을 지원하였다.

日本軍의 저항은 戰爭末期에 일이고, 특히 8月 15日 이후는 停戰을 수락하는 태세에 있었으므로 어느것도 경미하였다. 다만 큐릴열도(千島列島) 最北端의 占守島에 있어 日本軍이 본격적으로 치열한 저항을 하여 소聯上陸軍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므로 占守島에 대한 上陸部隊의 지원을 위한 소聯의 海上艦艇은 砲艦 6척(그의 로바드가岬에서 長射距離砲支援)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러한 第2次 大戦동안에 있어 소聯海軍의 戰略을 총괄하여 고루시코프는 「소聯軍이 히틀러·

독일軍事력에 주요한 부근을 본받은 덕택으로 美·英은 大西洋爭奪戰에 이기고 航路上에서 잃은 총 톤수의 倍가 되는 새로운 大規模의 商船隊를 편성 독일潛水艦과 싸우기 위한 大戰力을 이루게 하였다. 이와같이 소聯海軍은 大祖國戰爭에 있어, 또 第2次大戰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강력한 海敵을 불굴의 투지로 대결하고 戰爭을 통하여 海上戰鬪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소련海軍은 敵이 上陸作戰 또는 對上陸作戰에서와 같은 형태의 軍事行動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艦隊의 노력은 전쟁중에는 본질적으로 주요한 沿岸都市의 防衛와 解放에 직접참가 할 것, 공격 및 방어시에 沿岸地上軍 大部隊에게 全兵力을 투입하여 지원할 것, 또 地上戰線에서 결정적 開戰에 대하여 艦隊의 兵士는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 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소聯海軍戰略).

이 총괄은 自誇自讚의인 것을 제외하면 大戰爭에 있어 소聯海軍의 임무를 주로한 陸上部隊의 지원이고 “沿岸海軍”域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告白한 것으로 생각된다.

5. 大海軍建設의 꿈

第2次大戰의 교훈을 통하여 大海軍力の 필요성을 통감함에 있어 意見의 일치를 보면서 여하한 형태의 海上勢力을 조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戰前과 戰後의 소聯指導者들 생각은 결코 단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스탈린이 죽은 후에 권력투쟁을 거쳐 새로운 指導者로서 등장한 후루시초프時代가 되므로 그가 國防相으로 임명한 주코프에 의하여 海軍은 核미사일을搭載한 비교적 경비가 압드는 潛水艦, 輕快艦艇, 陸上基地 航空機만을 보유한 新形式의 장비로 전환한다는 方針이 나와 在來型 艦種의 대폭적인 삭감을 할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소聯海軍이 沿岸防衛的인 것에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聯이 外國에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海軍基地인 핀란드의 포르가라와 遼東半島의 旅順을 放棄한 것도 이 시기이다.

그러나 이 戰略方針도 역시 후루시초프와 주

코프의 失脚으로 다음 指導者로 브레지네프가 登場함으로써 전환하고 傳統派의이라고 할수 있는 균형이 잡힌 海軍力の 警비를 목표로 하고, 또한 라이벌의 美海軍보다 우세한 大海軍建設을 하기 위해 맹렬히 노력하였다.

이 大海軍建設의 추진役이 되는 것은 세르게이·고루시코프海軍元帥이다. 그는 1927年 레닌그라드의 브른제海軍高等學校에 入學하여 海軍의 軍人으로서 출발하였다.

1939年 黑海艦隊司令官으로 된것은 29세 때이고, 1956年 46세에 海軍總司令官으로 任命되었으며, 20數年 소聯海軍의 최고책임자로서 君臨하고 있다.

그는 政治的인 수완이 대단하였다. 후루시초프에 의해 海軍最高司令官으로 발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후루시초프에게 아첨하지 않고 海軍縮小方針을 늦추는데 노력을 계속하고 水上艦艇의 필요성을 政治局員들에게 납득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現共產黨 書記長 브레지네프도 獨·소戰爭中에 노보로스시스크防衛戰에 있어서 포위당한 브레지네프政治部員이 소속한 部隊를 당시 아소프海 小艦隊司令官이었던 고루시코프가 구출하였다는 戰友사이 이므로 두사람의 관계는 진밀하다.

1962年에 쿠바危機로 美國에게 굴복을 한것은 소聯首腦部에게는 戰略核戰力과 海軍力을 획기적으로 증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의를 깨우친 큰 계기가 되었다.

그후 兩分野에 있어 소聯裝備는 증강되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海軍力에서 소聯艦艇의 수와 총 톤수에 있어 美國을 앞지르게 되었다.

現在 소聯海軍의 총 兵力은 43만명(海軍航空隊 59,000, 海軍步兵 12,000, 沿岸砲兵 8,000포함) 艦艇 2,740척(이중 潛水艦 약 385척), 약 577만톤, 作戰航空機 775臺, 海軍步兵 5개 聯隊등을 보유하는 大海軍으로 발전하고 北洋, 발트, 黑海, 太平洋의 4개 艦隊와 가스비小艦隊로 편성하고 있다.

最近에는 2척(그의 2척建造中)의 기위프級 航母와 키로프級 原子力巡洋艦을 시초로 對艦, 對空미사일을 장비한 다수의 新型 水上艦艇의 건

조, 또는 백파이어等 원거리 폭격기의 배치등 外洋에 있어서 作戰能力을 대폭적으로 향상시켜 美海軍과의 대결에 자세를 취하고 부가해서 補給艦, 給油艦등 보조함정과 揚陸艦의 증강(최근 10年間に 약 3배가 됨), 商船隊의 근대화와 輸送능력 증가등으로 遠隔地에의 개입능력도 크게 발전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聯海軍은 1975年 4月에는 南北大西洋, 地中海, 인도洋, 일본周邊海域등 廣域으로 전개된 艦隊를 통합한 「오게안」 演習에서 戰略的 海上機動能力을 갖고 있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고 있다.

6. 結 論

소聯海軍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소聯太平洋艦隊는 또한 세력을 확충하고 기분나쁜 압력을 日本에게 미치고 있다. 그 海上勢力은 소聯全艦艇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800척, 약 158만톤에 달하고 최근에는 航母 민스크, 가리級 미사일巡洋艦, 原子力潛水艦등 新銳艦의 배치에 의한 戰力向上과 이완·로고프型 強襲揚陸艦 호바그라후트, 로로船(艦舷을 接岸하고 艦首 또는 艦尾에서 戰車, 車輛등을 직접 탑재 또는 揚陸되는)등 증가에 의한 水陸兩用 作戰能力이 향상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소聯太平洋艦隊는 南支那海에 10數隻, 인도洋에 20~30척을 항시 주둔시키고 베트남(감람灣등), 인도洋(소코트라島, 아덴등)의 基地사용으로 강력한 外洋艦隊로서 片鱗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對抗하는 日本海上自衛隊의 세력은 162척, 20.7만톤으로 소聯太平洋艦隊와 비교하면 현

저한 차이이고 빠른시일내에 증가가 필요하며 米·日安保條約의 환용과 美第7艦隊와의 協同作戰을 긴밀히 하기위해서 諸準備등이 필요한 것이다.

그옛날 우리들에 祖上은 러시아東洋艦隊에 대항하여 격파할 수 있는 海軍力을 造成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臥薪嘗膽」이란 말과 巨額의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三笠級 6척의 主力艦과 淺間級 6척의 重巡洋艦으로된 6.6艦隊를 건조하여 이것으로 露·日戰爭勝利의 原動力이 되게 한 것이다.

近海에 강력한 艦隊가 存在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위협이고 반면에 이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대상으로서의 存在價値를 인정하면 日本으로서서는 좋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祖上을 본받아 오늘의 日本은 소聯極東軍의 존재를 兵力과 裝備建設를 발전시키는 목표로서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해야만 된다.

이 小論은 陸上軍國 소聯이 大海軍建設을 진행시키는 背景과 그 발전과정의 아웃라인을 묘사한 것이지만 그 Energisch인 兵器와 裝備建設의 노력에 도움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들은 원래 戰爭을 좋아하지 않지만 戰爭을 무서워하고 戰爭을 放棄하는 겁을 먹지 말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나라를 지키는 태세를 정비하여야만 된다.

우리들은 自由世界와 우리나라의 위협인 소聯의 海軍, 특히 太平洋艦隊의 實體를 알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를 계속하여야 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軍事研究 1/1982)

